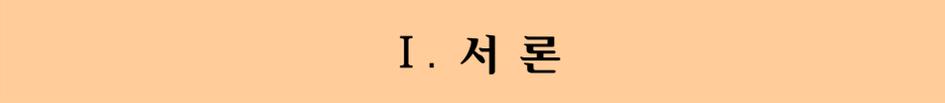




I. 서론



I. 서론

시간제 근로 혹은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중고등학생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이제 더 이상 일부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 밖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활동, 즉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이철위 외, 2000; 유성렬, 2005). 현대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전통적으로 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며, 청소년에게는 주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또래 집단이라는 영역이 주요 생활 무대로 간주되어왔다. 물론 예전에도 일부 근로 청소년이나 학비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유나 신문 배달 등을 하는 학생 청소년들이 있었지만 참여자의 수와 참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간제 근로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범위도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즉 아르바이트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부모나 학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사회가 원하는 성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로서 이러한 준비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학교와 가정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성인으로서 사회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나 가정이 아닌 외부의 장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집중되어 왔다(김기현, 2003; 문성호, 2003; 한경혜, 2000).

Mortimer & Finch(1986)와 Pimenel(1996)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참여를 통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다중역할 수행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미래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장래 직업목표나 직업가치,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Mortimer & Finch, 1986; Pimemel, 1996; 한경혜, 2000에서 재인용). 장원섭(1999)도 시간제 취업을 경험한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원섭, 1999)

반면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와 관련하여 널리 인용되어 온 그린버거와 스타인버그(Greenberger and Steinberg, 1986)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교 수업에 더 빈번하게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일탈 행동에 더 많이 가담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스타인버그와 돈부시(Steinberg and Dornbusch, 1991)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며 낮은 수준의 학업 성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문성호(2003)도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음주, 흡연, 문제행동 및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김기현(2003)은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와 학업 성적간에는 부적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성렬(2005)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서 아르바이트 여부는 다양한 종류의 비행과 학업 성적 등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2학년 패널 1-2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중학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학교부
적응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국내·외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제반 변수들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의 몇 가지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Mortimer, et al., 1994). 첫째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 혹은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임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낯설은 환경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청소년들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맡아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담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횡단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가 학교 성적과 비행 경험 등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유성렬(2005)의 연구는 이러한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경혜(2000)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경제관념 및 성취감 획득, 시간 관리, 직장 생활에서의 위계 관계 등의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을 획득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르바이트 경험은 직업 세계에 대한 예기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성렬, 2005).

두 번째로 연구자들이 관심을 둔 측면은 아르바이트에서의 노동의 강도(intensity)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사 당시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과 주당 노동 시간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시기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학교와 가정 및 친구들과 보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여야 할 시간이 줄어들고 동시에 학업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희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과 노동 강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Mortimer, et al., 1994).

우리나라에서도 김기현(2003)은 주당 노동 시간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여 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문성호(2003)도 주당 노동 시간 및 지속정도를 사용하여 비행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유성렬(2005)도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 시간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의 특성과 비행 및 학업성취 등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세 번째 주요 요소는 직종 또는 하는 일의 성격이다. 즉 어떤 직종은 다양한 종류의 내재적·외재적 보상을 제공해 주지만, 어떤 직종은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하기도 한다(Mortimer et al., 1994). 슐렌버그와 바크만(Schulenberg and Bachman, 199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별 관계가 없으며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핀치와 그의 동료들은(Finch, et al., 1991) 청소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며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의 증대에 영향을 주었고, 시간적 압박이나 작업 과부하를 느끼거나 학교생활과의 충돌을 경험하는 일을 한 경우에는 우울증적 성향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Shanahan, et al., 1991).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세 번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에서 청소년이 하고 있는 혹은 과거에 했던 직종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종을 묻는 조항도 단순히 대표적인 작업의 내용을 묻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작업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철위 외(2000)와 유성렬(2005)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대표적인 직

중이 전단지 돌리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전단지 돌리기와 기타 직종의 성격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를 시도한 것 외에는 아르바이트 작업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세 가지 측면과 더불어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르바이트 경력(work history)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종단자료 특히 패널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종단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하면서 부수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 개인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작업 강도의 변화 등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력에 대한 연구의 최대 걸림돌은 매 조사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거나 혹은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 분석을 위한 적절한 사례수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 경력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로 나타내어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험 유무의 변화 유형이 청소년의 삶의 영역의 주요 지표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력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차년도까지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력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년 동안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참여 실태를 참여 경험, 참여 강도, 직종 및 경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반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학교부적응

학교부적응이란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로서, 학생의 욕구, 감정, 사상 등이 학교의 규범에 수용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학교부적응 행동은 대체로 학습부진, 무단결석, 학교중퇴 등 학업과 관련된 유형과 폭력, 절도, 약물 등 비행과 관련된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학업과 관련된 학교부적응 유형은 ‘좋은 성적과 학습기회의 제공’이라는 학교조직의 기본 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며, 비행과 관련된 학교부적응 유형은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규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학교부적응을 학생들의 ‘적응의 실패’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오히려 부적응하도록 만드는 ‘학교체계의 실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사회의 교육적 현실을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학생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학생 개인의 측면과 학교체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개인적 측면에서의 학교부적응 원인으로는 낮은 자존감과 자아통제력, 정서적 불안, 친구관계의 어려움, 가족의 경제적 빈곤과 가족 결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체계의 측면에서는 엄격한 교칙과 차별적 적용, 권위적 학교 문화,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교육과정, 교사의 체벌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최근의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학교부적응의 원인으로 새롭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학생청소년들의 일의 참여이다. 서구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학생청소년의 시간제 근로를 통한 일의 참여가 이미 일반화되었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일에 대한 학생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아직 일하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적고, 학생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령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노동경험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 중의 하나로 예상되는 것이 학교부적응이다. 외국에서는 재학 중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연구결과들이 진행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재학 중 학생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노동의 강도에 초점을 두었다. D'Amico에 의하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들은 전혀 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중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 일하는 학생들은 전혀 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중퇴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중퇴하기가 쉬운 반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 일하는 학생들은 인내력, 신뢰성과 같은 중요한 특성을 일을 통해 배운 뒤, 학교수업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D'Amico, 1984). 이러한 노동시간과 학교중퇴 사이의 관계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Barro는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은 학교중퇴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주일에 15-21시간 일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0-14시간 일하는 학생들보다 50% 높은 중퇴율을 가지며, 21시간을 넘는 학생들은 100% 더 높은 중퇴율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Barro, 1984). 그리고 McNeal은 최소한의 고용은 이익이 되지만, 과도한 고용은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남아있는데 오히려 해롭고, 일주일에 7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들은 중퇴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더욱 높다고 주장하였다(McNeal,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구체적인 노동의 강도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노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학교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성호(2003)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노동시장에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음주, 흡연, 문제행동, 폭력에 있어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노동강도, 지속정도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런데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재학 중 청소년의 노동경험의 효과를 노동강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일의 유형의 측면에서 다른 연구결과도 있다.

McNeal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과 일의 유형이 모두 학교중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는 학생들의 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McNeal, 1997).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즉 노동유형과 노동강도가 학교부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노동유형과 노동강도로 나누었다. 노동유형은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 신문·우유 배달, 판매, 제조·건설,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였고, 각 변수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동강도는 주당노동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노동유형 중에서 음식점 서빙·배달은 피자·치킨 등의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점, 중국음식점에서의 서빙·카운터·배달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디오방,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카페 및 주점에서의 카운터 및 서빙을 유해업소 서빙으로 범주화하였다. 신문·우유의 배달은 음식점에서의 배달과 비교할 때, 노동시간이나 노동환경이 매우 달라 별도의 범주로 취급하였다. 판매는 주로 소매점이나 편의점에서 점원으로서의 판매가 포함되었고, 제조·건설은 공장에서의 일이나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이 포함되었다. 기타 서비스는 주유소, 물건운반, 업무보조, PC 입력, 놀이공원 등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수인 학교부적응 행동으로는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 성경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징계경험, 학업성적, 교사애착, 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 학교 교칙 및 규정에 대한 적응도를 설정하였다. 무단결석, 음주, 가출, 성경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는 ‘지난 1년 동안의 횟수’로 측정되었고, 흡연은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피운 횟수’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징계경험은 ‘비행이나 범죄로 학교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업성적은 반성적(반등수)를 사용하였다. 등수가

높을수록 반성적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교사애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의 세 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한 후 사용하였다. 학교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는 ‘나는 학교에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 교칙 및 규정에 대한 적응도는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의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간주되어왔던 성, 아버지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편부모가족여부, 부모와의 유대감, 학교성적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은 남자가 1, 여자가 2로 측정되었고, 아버지 교육수준은 무학인 1에서 대학원박사인 8까지 8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지난 1년간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으로 측정되었다.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는 경우를 편부모가족으로 설정하였는데, 양부모가 1, 편부모가 2로 측정되었다. 부모와의 유대감은 ‘부모님과 내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정도’ 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의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성적은 지난 학기 반에서의 석차를 백분율로 환산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Ⅲ. 분석자료



Ⅲ.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 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차까지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2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표 III-1> 중2 패널 1차년도 12개 시도별 표집학교수(제주도 제외)

구분	중학교 2학년 학생수	중학교 수	중학교 2학년 학급수	목표 표본수	학급당 평균 학생수	표집 학교수
총계	618,100	2,808	17,504	2,967	35	104
서울특별시	120,826	358	3,591	580	34	20
부산광역시	48,040	165	1,374	231	35	8
대구광역시	36,529	111	977	175	37	6
인천광역시	36,596	103	912	176	40	6
광주광역시	20,529	71	533	99	39	4
대전광역시	20,227	73	570	97	35	3
울산광역시	16,478	46	432	79	38	3
경기도	135,084	434	3,436	648	39	21
강원도	19,117	159	573	92	33	4
충청도	42,286	310	1,324	203	32	8
전라도	48,482	448	1,582	232	31	8
경상도	73,906	530	2,200	355	34	13

조사결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를 성공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3,697명의 93.3%인 3,449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표 III-2> 중2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조사성공률

	조사성공 사례수(%)	학부모동의 거절사례수(%)	합계
서울특별시	585 (93.2)	43 (6.8)	628 (100.0)
인천광역시	198 (88.4)	26 (11.6)	224 (100.0)
경기도	777 (92.0)	68 (8.0)	845 (100.0)
강원도	123 (93.9)	8 (6.1)	131 (100.0)
대전광역시	102 (94.4)	6 (5.6)	108 (100.0)
충청도	258 (96.6)	9 (3.4)	267 (100.0)
광주광역시	136 (91.3)	13 (8.7)	149 (100.0)
전라도	245 (92.1)	21 (7.9)	266 (100.0)
부산광역시	254 (94.4)	15 (5.6)	269 (100.0)
울산광역시	105 (95.5)	5 (4.5)	110 (100.0)
대구광역시	212 (95.1)	11 (4.9)	223 (100.0)
경상도	454 (95.2)	23 (4.8)	477 (100.0)
합계	3,449 (93.3)	248 (6.7)	3,697 (100.0)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3.1%인 3,21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III-3>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1)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례수(%)
서울특별시	587	573	534	93.2%
인천광역시	199	196	185	94.4%
경기도	773	765	679	88.8%
강원도	123	123	104	84.6%
대전광역시	102	102	100	98.0%
충청도	255	254	246	96.8%
광주광역시	137	136	132	97.1%
전라도	249	247	232	93.9%
부산광역시	255	253	246	97.2%
울산광역시	106	106	106	100.0%
대구광역시	212	212	205	96.7%
경상도	451	450	442	98.2%
합계	3,449	3,417	3,211	94.0%

1) 전학으로 인해 2003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211명) 비율 : 93.1%

※ 조사가능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211명) 비율 : 94.0%

※ 조사대상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122명) 비율 : 90.5%

※ 조사가능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122명) 비율 : 91.3%

보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측정할 자료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정확한 가구수입 등을 알지 못해서 측정의 오류가 많았던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을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교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IV. 분석결과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본 절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및 2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1차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449명의 응답자 가운데 14.8%인 510명이 조사 당시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유성렬, 2005), 2차년도 조사에서는 3,209명의 응답자 가운데 11.4%인 366명이 2차년도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1>.

<표 IV-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1·2차년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있다	없다	전체
1차년도	있다	145	326	471
	없다	221	2,517	2,738
	전체	366	2,843	3,209

이는 1차년도 대비 28.2%가 감소한 것으로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비율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감소는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학업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그러나 1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2차년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221명에 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2년간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학생은 1차

년도 조사에 응답한 3,449명을 기준으로 약 20%에 달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실태를 살펴보는 것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1차년도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와 표본 탈락과의 관계이다. 만일 1차년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면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조사 결과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IV-2>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와 표본 탈락은 서로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 1차년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2차년도 표본탈락과의 관계
(단위 : 빈도, %)

구 분		표본 탈락 여부		
		있다	탈락	전체
1차년도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471 (92.4)	39 (7.6)	510 (100.0)
	없다	2,738 (93.2)	201 (6.8)	2,939 (100.0)
	전체	3,209 (93.0)	240 (7.0)	3,449 (100.0)

$$\chi^2(df) = .438(1), p > .05$$

<표 IV-2>에 따르면 1차년도 조사에는 참여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총3,449명 중 240명으로서 7%의 표본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1차년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7.6%인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 가운데 2차년도 표본에서 탈락한 학생은 6.8%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에서의 표본 탈락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2차년도의 표본 탈락과 1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유성렬, 2005). 2차년도의 경우 남학생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4%인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12.4%인 것을 나타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4.731$, $df=1$, $p>.05$). 즉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단위 : 빈도, %)

구 분		성별		
		남자	여자	전체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61 (3.8)	84 (5.2)	145 (4.5)
	1차년도만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170 (10.6)	156 (9.7)	326 (10.2)
	2차년도만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106 (6.6)	115 (7.2)	221 (6.9)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1,267 (79.0)	1,250 (77.9)	2,517 (78.4)
	전체	1,604 (100.0)	1,605 (100.0)	3,209 (100.0)

$$\chi^2(df) = 4.731(3), p > .05$$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 IV-3>에 따르면, 2년 모두에 걸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인 145명으로 그 가운데 남학생은 61명(3.8%)인 반면 여학생은 84명(5.2%)이었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517명으로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78.4%에 달하고 있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지만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학생은 326명인 반면, 1차년도 조사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은 22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2년간의 변화는 학생의 성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1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2차년도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진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도 약 7%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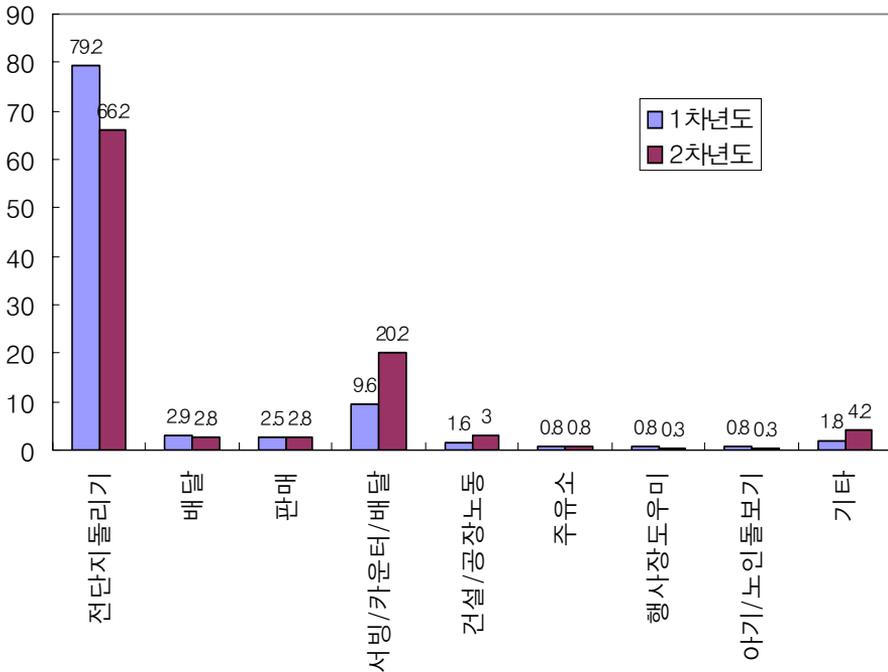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2차년도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1차년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2년간의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표 IV-4> 지난 1년간의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1·2차년도)

참여횟수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251	49.2	207	56.6
2	96	18.8	52	14.2
3	56	11.0	49	13.4
4	24	4.7	11	3.0
5	29	5.7	16	4.4
6	6	1.2	2	.5
7	8	1.6	3	.8
8	3	.6	1	.3
9	-	-	1	.3
10회 이상	37	7.3	24	6.6
합계	510	100.0	366	100.0

<표 IV-4>에 따르면 2차년도의 경우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1회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07명으로 56.6%를 차지하였고, 2~5회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5% 정도인 반면, 1차년도에는 1회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9.2%, 2~5회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0.2%로 나타났다. 2년간의 아르바이트 횟수를 단순 비교해 보면, 1차년도 보다는 2차년도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1회성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IV-1>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2차년도에 새로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이 221명으로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6명의 60% 정도에 이르고 있다. 1차년도 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온 학생들보다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 IV-4>에 나타난 경향은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들의 성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V-1] 아르바이트 직종 현황(1 · 2차년도)

1차년도의 경우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직종에 대한 질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80% 가량은 전단지 돌리기를 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유성렬, 2005). 이렇게 전단지 돌리기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주 직종이 되는 경향은 2차년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IV-1>. 즉 1차년도와 유사하게 2차년도의 경우에도 66.2%가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단지 돌리기는 1차년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년도와는 달리 전단지 돌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79.2%에서 66.2%로 상당히 줄어든 반면, 음식점 등에서 서빙을 하거나 배달 혹은 카운터에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차년도의 9.6%에서 2차년도에는 20.2%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전단지 돌리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지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직종의 범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다른 직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13	2.5	12	3.3
학비를 벌기 위해서	3	.6	2	.5
용돈이 부족해서	249	48.8	209	57.3
취업(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19	3.7	19	5.2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129	25.3	64	17.5
주위(부모, 친지 및 친구들)의 권유로	74	14.5	43	11.8
친구들 돕기 위해서	11	2.2	8	2.2
운동 삼아서	2	.4	1	.3
호기심에	7	1.4	3	.8
부모님 가게를 돕기 위해서	3	.6	2	.5
재미삼아서	-	-	1	.3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	-	1	.3
합계	510	100.0	365	100.0

<표 IV-5>에 따르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 부족, 여가시간 활용, 주위의 권유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는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된 반면,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학생들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부족한 용돈을 충당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의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활비를 벌거나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일을 하였다는 학생들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 비록 시간제이기는 하지만 직업으로서의 아르바이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6>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7일	364	71.4	243	66.4
8~14일	31	6.1	27	7.4
15~21일	31	6.1	25	6.8
22~30일	60	11.8	55	15.0
31일 이상	24	4.7	16	4.4
합계	510	100.0	366	100.0

<표 IV-6>은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와 같은 일회성 성격에서 점차 벗어나 안정적인 지속적 형태의 아르바이트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2차년도에서도 1차년도와 같이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가 6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항목에서는 1차년도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장 최근의 아르바이트에서 일주일 이상 한 달 미만 동안 일을 한 경우가 1차년도에는 24%이었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는 29.2%로 증가하였

다. 비록 이러한 증가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상급학년으로 나아감에 따라 그들의 아르바이트 성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7>은 청소년들이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일주일 동안의 근무 일수를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일주일 가운데 3일 이하로 일한 학생들의 비율이 각각 감소한 반면, 4일 이상 일을 한 학생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주일에 7일 동안 근무했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2차년도의 경우 15%에 이르고 있어 하루를 근무했다고 응답한 경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단지 돌리기 등의 일회성 성격의 직종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직종에서 일을 한 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조사의 응답자들 대부분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고려할 때 일주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IV-7> 아르바이트의 주당 근무 일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일	224	45.4	145	39.6
2일	75	15.2	51	13.9
3일	64	13.0	47	12.8
4일	15	3.0	19	5.2
5일	33	6.7	30	8.2
6일	37	7.5	19	5.2
7일	45	9.1	55	15.0
합계	493	100.0	366	100.0

<표 IV-8>에 나타난 일일 근무 시간과 관련한 내용도 <표 IV-7>의 내용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1차년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차년

도에도 일일 근무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57.9%에 달하고 있지만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약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 근무 일수가 7일에 육박하거나 일일 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비해 학교생활을 비롯한 학업과 관련된 일이나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할 시간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적절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IV-8>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 시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시간	58	11.4	34	9.3
2시간	144	28.2	86	23.5
3시간	142	27.8	92	25.1
4시간	64	12.5	42	11.5
5시간	46	9.0	45	12.3
6시간 이상	56	11.0	67	18.3
합계	510	100.0	366	100.0

<표 IV-9>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시간당 보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기할 것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전반적인 보수수준이 상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의 경우 시간당 2,000원 이하의 보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35.5%인 것에 반해 2차년도에는 24.8%에 머무른 반면,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보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21.6%에서 31.4%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시간급의 경우 시간당 2,556원임을 감안할 때(노동부 고시 제2004-23호, 2004),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시간당 보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00원	51	10.0	17	4.6
1,000초과 ~ 2,000원이하	130	25.5	74	20.2
2,000초과 ~ 3,000원이하	110	21.6	115	31.4
3,000초과 ~ 4,000원이하	38	7.5	37	10.1
4,000초과 ~ 5,000원이하	86	16.9	46	12.6
5,000초과 ~	95	18.6	77	21.0
합계	510	100.0	366	100.0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및 작업 강도와 직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V-10>에 나타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직종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은 그 외의 일을 한 학생들에 비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상대적으로 그 지속기간이 짧았으며, 주당 근무 일수도 평균 3일 미만이었고 일일 근무 시간도 3시간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일을 한 학생들은 평균 지속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평균 주당 근무 일수는 약 4일 정도, 평균 일일 근무 시간은 5시간 이상이었고, 두 집단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일을 한 학생들은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에 비해 지속기간,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 시간에서 높은 강도의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0>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직무 기간 및 강도의 차이

1차년도					
변수	직종	N	평균	표준편차	t
지속 기간	전단지	403	7.97	20.13	-4.666***
	기타	106	25.30	36.83	
주당근무일수	전단지	388	2.35	1.86	-6.600***
	기타	105	3.97	2.33	
일일근무시간	전단지	404	2.88	1.44	-7.427***
	기타	106	5.32	3.30	
2차년도					
변수	직종	N	평균	표준편차	t
지속 기간	전단지	239	8.23	13.40	-2.475*
	기타	127	20.81	56.43	
주당근무일수	전단지	239	2.57	2.00	-5.469***
	기타	127	3.93	2.40	
일일근무시간	전단지	238	3.10	2.02	-7.534***
	기타	127	5.79	3.74	

* p < .05 ; *** p < .001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경험한 아르바이트 직종이 전단지 돌리기였지만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직종에서 일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즉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직종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직종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에게 있어서 직업 활동 즉 아르바이트는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하는 직업 활동에 참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조화를 방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청소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아르바이트 직종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표 IV-11> 부당한 근로 경험(단위 : 빈도, %)

구 분	1차년도 (N=510)		2차년도 (N=366)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444 (87.1)	66 (13.0)	309 (84.4)	57 (15.6)
야근·휴일근무 후 수당을 받지 못함	499 (97.8)	11 (2.2)	349 (95.4)	17 (4.2)
계약시간 초과 작업 후 임금을 올려주지 않음	468 (91.8)	42 (8.2)	336 (91.8)	30 (8.2)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킴	486 (95.3)	24 (4.7)	341 (93.2)	25 (6.8)
불결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	467 (91.6)	43 (8.5)	332 (90.7)	34 (9.3)
작업중 다침	414 (81.2)	96 (18.9)	320 (87.4)	46 (12.6)
폭언 등의 인격모독	487 (95.5)	23 (4.5)	350 (95.6)	16 (4.3)
구타나 폭행	504 (98.8)	6 (1.2)	357 (97.5)	9 (2.5)
성희롱이나 성폭력	506 (99.2)	4 (0.8)	356 (97.3)	10 (2.7)

<표 IV-11>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1차년도에는 13%에서 2차년도에는 15.6%로 증가하고 있으며, 야근이나 휴일근무 후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2차년도에는 약 10%정도의 청소년들이 불결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차년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12.6%의 청소년들은 작업 중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10% 이상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기할 것은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구타나 폭행 혹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근로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이와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요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성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가정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차년도에 측정된 가정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2차년도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IV-12>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2차년도)

변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만원)	있다	351	258.79	164.55	-3.735***
	없다	2,730	292.96	212.84	
아버지의 교육정도	있다	346	4.48	1.23	-4.476***
	없다	2,750	4.75	1.30	
어머니의 교육정도	있다	342	3.97	1.08	-2.898**
	없다	2,719	4.25	1.09	

** p < .01 ; *** p < .001

<표 IV-12>에 따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주요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가용할 수 있는 용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3%가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교육 정도가 높은 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부수적인 활동보다는 학업에 전념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가 2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년도에 조사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를 나타내는 4개 집단(2년 모두 경험 있음, 1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2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및 2년 모두 경험 없음)에 대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V-13>.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는 학생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가정의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년도에만 혹은 2차년도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가정의 소득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아르바이

트를 한 학생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1차년도에만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청소년의 아버지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다른 세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교육수준이 높았다.

<표 IV-13>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변수	구 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집단간 분산	481.76	3	1,605.85	3.716*
	집단내 분산	132,978.46	3,077	43.22	
	합계	133,460.22	3,080		
	post-hoc test(Scheffe) : 2년 모두 경험 없음 > 2년 모두 경험 있음				
아버지의 학력	집단간 분산	40.46	3	13.485	8.056***
	집단내 분산	5,176.12	3,092	1.674	
	합계	5,216.57	3,095		
	post-hoc test(Scheffe) : 2년 모두 경험 없음 > 2년 모두 경험 있음 2년 모두 경험 없음 > 1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어머니의 학력	집단간 분산	38.25	3	12.75	10.788***
	집단내 분산	3,613.41	3,057	1.18	
	합계	3,651.66	3,080		
	post-hoc test(Scheffe) : 2년 모두 경험 없음 > 2년 모두 경험 있음 2년 모두 경험 없음 > 1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2년 모두 경험 없음 > 2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 p < .05 ; *** p < .001

이러한 결과는 <표 IV-12>에서 관찰된 결과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와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정의 소득이 높거나 부모의 교육 정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보다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낮다. 특히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는 청소년의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그러한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1차년도에 응답한 학교 성적과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V-14>.

<표 IV-14> 학업 성적(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2차년도)

변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반 등수	있다	343	21.56	9.86	9.991***
	없다	2,694	15.76	10.16	
반 등수 비율	있다	346	42.89	26.56	10.419***
	없다	2,715	59.09	27.35	
전교 등수	있다	314	188.90	122.31	6.758***
	없다	2,470	142.22	114.35	
전교 등수 비율	있다	318	55.56	25.66	9.992***
	없다	2,510	39.70	26.81	

*** p < .001

이 결과에 따르면 1차년도의 학업성적은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4>에 사용된 변수들의 값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1차년도 성적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기현(2003)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기현(2003)의 연구에서는 이전의 성적이 아르바이트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지만 그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구조계수는 .10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표 IV-14>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적과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표 IV-15> 학업 성적(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변수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반 등수	집단간 분산	14,233.5	3	4,744.5	46.86***
	집단내 분산	307,076.3	3,033	101.2	
	합계	321,609.8	3,036		
	post-hoc test(Scheffe) : 2년 모두 경험 없음 < 나머지 3개 집단				
반 등수 비율	집단간 분산	10,5812.5	3	35,270.8	48.08***
	집단내 분산	2,242,803.9	3,057	733.7	
	합계	2,348,616.4	3,060		
	post-hoc test(Scheffe) : 2년 모두 경험 없음 < 나머지 3개 집단 1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 2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1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 2년 모두 경험 있음				
전교 등수	집단간 분산	880,443.1	3	2,934,810	22.234***
	집단내 분산	36,675,082.5	2780	13,199.7	
	합계	37,575,525.6	2783		
	post-hoc test(Scheffe) : 2년 모두 경험 없음 < 나머지 3개 집단				
전교 등수 비율	집단간 분산	89,485.3	3	29,828.4	42.27***
	집단내 분산	1,993,028.5	2,824	705.7	
	합계	2,082,513.8	2,827		
	post-hoc test(Scheffe) : 2년 모두 경험 없음 < 나머지 3개 집단 1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 2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1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 2년 모두 경험 있음				

* p < .05 ; *** p < .001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과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V-15>.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나머지 3개 집단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석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단순하게 기술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의 석차가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 석차 비율과 관련한 <표 IV-15>의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면 흥미 있는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학교 석차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다른 3개 집단의 학생들보다 등수 비율이 낮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2개의 집단의 석차 비율이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보다 낮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석차 비율이 가장 낮고,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지만 2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석차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 이는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1차년도의 성적 뿐 아니라 2차년도의 성적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학업 성적이 매우 중시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업 성적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성렬(2005)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1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비행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흡연과 음주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비행에 더 가담하고 있었다. 비록 이 결과로부터 아르바이트로 인해 비행에 참여하게 되는지 아니면 비행에의 참여가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방해하여 아르바이트로 더 쉽게 진출하게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르바이트 경험과 비행 사이에는 명백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시도로서 1차년도에 측정된 여러 가지 비행 경험과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IV-16> 비행(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단위 : 빈도, %)

비행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			χ^2 (df=1)
		있다	없다	계	
흡연	없다	269(73.5)	2,525(88.8)	2,794	67.57***
	있다	97(26.5)	318(11.2)	415	
음주	없다	189(51.6)	2,037(71.6)	2,226	61.10**
	있다	177(48.4)	806(27.4)	983	
무단결석	없다	326(89.1)	2,728(96)	3,054	33.43***
	있다	40(10.9)	115(4.0)	155	
가출	없다	332(90.7)	2,749(96.7)	3,081	30.31***
	있다	34(9.3)	94(3.3)	128	
성관계 경험	없다	356(97.3)	2,822(99.3)	3,178	13.47***
	있다	10(2.7)	21(.7)	31	
폭행	없다	317(86.6)	2,611(91.8)	2,928	11.09**
	있다	49(13.4)	232(8.2)	281	
패싸움	없다	328(89.6)	2,710(95.3)	3,038	20.92***
	있다	38(10.4)	133(4.7)	171	
금품갈취 (뺑뜨기)	없다	324(88.5)	2,715(95.5)	3,039	31.43***
	있다	42(11.5)	128(4.5)	170	
절도	없다	324(88.5)	2,656(93.4)	2,980	11.74**
	있다	42(11.5)	187(6.6)	229	
남 놀리거나 조롱하기	없다	296(80.9)	2,437(85.7)	2,733	6.03*
	있다	70(19.1)	406(14.3)	479	
협박	없다	340(92.9)	2,735(96.2)	3,075	8.85**
	있다	26(7.1)	108(3.8)	134	
왕따시키기	없다	298(81.4)	2,463(86.6)	2,761	7.34**
	있다	68(18.6)	380(13.4)	448	

N = 3,20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V-16>에 나타나 있듯이 1차년도에 측정된 비행 경험과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에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학생은 26.5%인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은 11.2%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음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차년도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48.4%인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학생은 27.4%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종류의 비행의 경우에도 1차년도의 경험과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사이의 관계는 흡연이나 음주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를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성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행과 아르바이트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요인이 원인의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비행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관련 경험이 학생들을 비행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이러한 관계가 순환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횡단 자료에 비해 종단 자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앞서 제기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가 제공하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비행과 아르바이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다변량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차년도의 비행 경험과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의 관계가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그에 따른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V-17>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6>에서 나타난 비행과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가 2년에 걸친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연의 경우 1차년도에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8.4%의 학생들이 2년 동안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2차년도에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4.4%로 나타났다. 반면에 1차년도에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거나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18.1%, 7.4%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과 전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의 차이는 무려 21%에 달하고 있다. 이는 <표 IV-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흡연 경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더 몰입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음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차년도에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또한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7> 비행(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단위 : 빈도, %)

비행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계	$\chi^2(df=1)$
		2년 모두 경험있음	2차년도 경험있음	1차년도 경험있음	2년 모두 경험없음		
흡연	없다	104 (71.7)	167 (75.6)	267 (81.9)	2,333 (92.7)	2,871	141.30***
	있다	41 (28.3)	54 (24.4)	59 (18.1)	184 (7.3)		
음주	없다	64 (44.1)	115 (52.0)	199 (61.0)	1,900 (75.5)	2,278	129.69***
	있다	81 (55.9)	106 (48.0)	127 (39.0)	617 (24.5)		
무단결석	없다	115 (79.3)	198 (89.6)	297 (91.1)	2,407 (95.6)	3,017	79.99***
	있다	30 (20.7)	23 (10.4)	29 (8.9)	110 (4.4)		

<표 IV-17> 비행(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계속)

비행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계	$\chi^2(df=1)$
		2년 모두 경험있음	2차년도 경험있음	1차년도 경험있음	2년 모두 경험없음			
가출	없다	129 (89.0)	196 (88.7)	306 (93.9)	2,456 (97.6)	3,087	72.75***	
	있다	16 (11.0)	25 (11.3)	20 (6.1)	61 (6.4)			122
성관계 경험	없다	141 (97.2)	218 (98.6)	320 (98.0)	2,503 (99.4)	3,182	13.45**	
	있다	4 (2.8)	3 (1.4)	6 (1.8)	14 (0.6)			27
폭행	없다	127 (87.6)	199 (90.0)	302 (92.6)	2,433 (96.7)	3,061	49.30***	
	있다	18 (12.4)	22 (10.0)	24 (7.4)	84 (3.3)			148
패싸움	없다	130 (89.7)	206 (93.2)	315 (96.6)	2,490 (98.9)	3,141	86.29***	
	있다	15 (10.3)	15 (6.8)	11 (3.4)	27 (1.1)			68
금품갈취 (뺑뚱기)	없다	132 (91.0)	197 (89.1)	304 (93.3)	2,467 (98.0)	3,100	77.63***	
	있다	13 (9.0)	24 (10.9)	22 (6.7)	50 (2.0)			109
절도	없다	135 (93.1)	206 (93.2)	303 (92.9)	2,461 (97.8)	3,105	38.45**	
	있다	10 (6.9)	15 (6.8)	23 (7.1)	56 (2.2)			104
남 놀리거나 조롱하기	없다	131 (90.3)	202 (91.4)	296 (90.8)	2,380 (94.6)	3,009	12.63**	
	있다	14 (9.7)	19 (8.6)	30 (9.2)	137 (5.4)			200
협박	없다	136 (93.8)	21 (95.0)	316 (96.9)	2,479 (98.5)	3,141	26.31***	
	있다	9 (6.2)	11 (5.0)	10 (3.0)	38 (1.5)			68

<표 IV-17> 비행(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계속)

비행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계	χ^2 (df=1)
		2년 모두 경험있음	2차년도 경험있음	1차년도 경험있음	2년 모두 경험없음		
왕따시키기	없다	135 (93.1)	209 (94.6)	315 (96.6)	2,437 (96.8)	3,096	7.34**
	있다	10 (6.9)	12 (5.4)	11 (3.4)	80 (3.2)		

N = 3,209

* p < .05 ; ** p < .01 ; *** p < .001

이러한 관계는 다른 종류의 비행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고 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비행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관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분석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및 그 변화와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력과 작업 강도 등과의 관계 여부를 밝혀줄 수 있다.

<표 IV-18>은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아르바이트 경력에 따라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작업 강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들에 비해 지난 1년간 했던 아르바이트 횟수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18> 아르바이트 경력과 2차년도 아르바이트 작업강도와의 관계

변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변화	N	평균	표준편차	t
아르바이트 횟수	2년 모두 경험	141	3.74	8.38	2.495*
	2차년도만 경험	217	1.96	1.77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2년 모두 경험	145	18.51	54.03	2.151*
	2차년도만 경험	221	8.72	11.34	
주당근무일수	2년 모두 경험	145	3.22	2.26	1.242
	2차년도만 경험	221	2.21	2.21	
일일근무시간	2년 모두 경험	145	3.23	3.23	.790
	2차년도만 경험	220	2.88	2.88	

** p < .01 ; *** p < .00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력과 아르바이트의 횟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설명은 두 해 모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새로운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직이나 직종을 옮기는 것 등의 활동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으며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제반 경험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횟수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자료의 측정오차와 관련이 있다. 아르바이트 횟수의 경우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횟수를 기입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의 이 문항은 사실 1차년도 조사 이후부터 설문에 응답하는 시점까지의 아르바이트 횟수를 적어야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항에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응답자들이 응답하는 가운데 1차년도에 했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가능성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2차년도에 응답한 아르바이트 횟수는 실제보다 더 높은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횟수와 아르바이트 경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

함에 있어서 측정오차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2년간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은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들보다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해 모두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축적된 아르바이트 경험은 고용자들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자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주당 근무일수와 일일 근무 시간에서 더 높은 강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과는 달리 아르바이트의 작업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와 아르바이트 경력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9> 아르바이트 경력과 2차년도 아르바이트 직종과의 관계

구 분		직종		
		전단지	기타	전체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변화	2년 모두 경험	92 (38.5)	53 (41.7)	145
	2차년도만 경험	147 (61.5)	74 (58.3)	221
	전체	239 (100.0)	127 (100.0)	366

$$\chi^2(df) = .364(1), p > .05$$

<표 IV-19>는 아르바이트 경력과 2차년도의 아르바이트 직종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차년도에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 가운데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38.5%인 반면 기타 직종의 일을 한 학생 가운데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은 41.7%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년도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61.5%가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고 이보다 조금 낮은 58.3%가 기타 직종의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르바이트 경력에 따라 직종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시사한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지난 1년간 체험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게 된 경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해 가지 못한 적이 있거나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거나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과 아르바이트 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변수들 사이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IV-20>

<표 IV-20>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게 된 경험과 아르바이트 작업강도와의 관계(단순상관계수)

구 분	아르바이트 횟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주당근무일수	일일근무시간
수업시간에 잔다	.072	.183***	.258***	.158**
숙제를 못함	.078	.108*	.224***	.195***
성적이 떨어짐	.009	.169**	.181***	.148**
친구와의 시간 감소	.113*	.131*	.257***	.238***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V-20>은 아르바이트의 작업강도와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바이트 횟수는 친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였다는 것 외에는 별 관계가 없지만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근무 시간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길수록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해가지 못하거나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거나 친한 친구와의 보낼 시간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당 근무 일수 및 일일 업무 시간과도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 아르바이트의 작업 강도와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요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 작업 강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르바이트에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IV-20>에 나타난 결과는 아르바이트 작업 강도는 학교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V-21> 아르바이트 직종과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과의 관계

변수	직종	N	평균	표준편차	t
수업시간에 잔다	전단지	239	1.73	1.06	-2.320*
	기타	127	2.05	1.31	
숙제를 못함	전단지	239	1.66	1.00	-1.844 ^a
	기타	127	1.88	1.17	
성적이 떨어짐	전단지	239	1.58	.89	-1.851 ^a
	기타	127	1.78	1.05	
친구와의 시간 감소	전단지	239	1.83	1.15	-3.802***
	기타	127	2.39	1.41	

^a p < .10 ; * p < .05 ; *** p < .001

<표 IV-21>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이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가의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전단지 돌리기는 그렇지 않은 직종에 비해 학교생활이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차년도에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잔 적이 적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친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였다

는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단지 돌리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투자해야할 시간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직종임을 시사한다. 추후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직종으로서의 전단지 돌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전단지 돌리기의 비중이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몰입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곧 학교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2> 아르바이트 경력과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과의 관계

변수	직종	N	평균	표준편차	t
수업시간에 잔다	2년 모두 경험 있음	145	2.03	1.26	2.479*
	2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221	1.72	1.10	
숙제를 못함	2년 모두 경험 있음	145	1.94	1.18	2.965**
	2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221	1.60	.96	
성적이 떨어짐	2년 모두 경험 있음	145	1.82	1.09	2.70**
	2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221	1.53	.83	
친구와의 시간 감소	2년 모두 경험 있음	145	2.28	1.35	3.021**
	2차년도에만 경험 있음	221	1.86	1.20	

* p < .05 ; ** p < .01

<표 IV-22>는 아르바이트 경력에 따라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차년도에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4개의 변수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시기의 아르바이트 강도 뿐 아니라 2년에 걸친 아르바이트 경력도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를 위한 시간과 부적인 관계를 갖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된 변수들이 실제 학업 성적을 나타내거나 친구와 보낸 시간을 나타내다기 보다는 응답자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작업의 강도나 경력이 학교 성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그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니는 함의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와 2차년도 자료를 조합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통제변수인 성, 아버지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편부모가족여부, 부모와의 유대감, 학교 성적을 모두 1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하였고, 독립변수인 아르바이트 유형과 노동강도, 종속변수인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 성경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징계경험, 반성적, 교사에착, 친구와의 어울림 정도, 학교 교칙 및 규정에의 적등도과 같은 학교부적응 행동은 2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서 시간적 선행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택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1차년도의 학교부적응행동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은 두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 분석에서는 학교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르바이트 노동유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효과를 살펴본 후, 아르바이트 유형별로 참여경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으로 나누어 아르바이트 유형별로 참여경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첫번째 분석에서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모두 포함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학교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르바이트 노동강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에서의 노동강도의 효과를 살펴본 후, 성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으로 나누어 노동강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노동유형별 주요 변수들의 분포 및 평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아르바이트 노동유형별 학생들의 분포, 아르바이트 노동유형별 주당노동시간 및 학교부적응행동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표 IV-23> 노동유형별 주요 변수들의 분포 및 평균

	비참여 자	전단지	음식점 서빙· 배달	유해 업소 서빙	우유·신 문배달	판매	제조· 건설	기타 서비스
인원	2,843	239	46	25	10	9	11	21
백분율	88.7	7.5	1.4	0.8	0.3	0.3	0.3	0.7
주당 노동시간	0	8.1	27.0	15.8	13.6	18.9	34.5	19.6
무단결석	.24	.59	3.15	.80	.40	.22	.73	2.57
흡연	.19	.59	1.77	2.73	.00	1.75	2.44	1.28
음주	1.39	2.47	5.41	3.64	1.90	3.67	4.45	4.24
가출	.01	.12	.65	.44	.00	.11	.27	.57
성경험	.03	.08	.02	.04	.00	.44	.00	.00
폭력	.23	.21	1.22	.76	.01	1.11	.27	.19
패싸움	.04	.05	.30	.24	.00	.44	.18	.10
금품갈취	.18	.62	.85	.16	.00	2.44	.27	.05
절도	.09	.66	.70	.12	.00	.56	.91	.00
징계	1.29	1.61	2.13	2.17	1.40	2.11	1.55	1.52
남학생(%)	50.5	47.4	32.6	48.0	70.0	11.1	54.5	42.9

1) 표에 제시되어 있는 주당노동시간과 학교부적응행동의 수치는 노동유형별 평균값임

전체 응답자 3,204명 중에서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61명으로 11.3%,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2,843명으로 88.7%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소년을 노동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단지가 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점 서빙·배달이 1.4%, 유해업소 서빙이 0.8%, 기타 서비스가 0.7%, 우유·신문 배달, 판매, 제조·건설이 각각 0.3%로 나타났다.

노동유형별로 주당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제조·건설이 34.5시간, 음식점 서빙·배달이 27시간으로 높은 시간을 나타냈고, 전단지는 8.1시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부적응 행동을 노동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에서는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 제조·건설, 기타 서비스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왔고, 성격험은 판매에서 높게 나왔다. 폭력비행은 음식점 서빙·배달과 판매에서 높게 나온 반면, 재산비행은 판매와 제조·건설에서 높게 나타났다. 징계는 유해업소 서빙, 음식점 서빙·배달에서 높게 나왔다. 우유·신문 배달은 오히려 아르바이트 비참여자보다도 비행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유형별 참여자의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우유·신문 배달에서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로서 여학생보다 비율이 높은 반면, 판매에서는 11.1%에 불과하여, 이 두 가지 노동유형에서 성별 편중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르바이트 노동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부적응에 대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유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성, 아버지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편부모여부, 부모와의 유대감, 학교성적, 1차년도 학교부적응행동의 횟수가 회귀모델에 투입되었으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학교부적응행동은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 성격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징계경험이다.

(1) 무단결석

<표 IV-24> 노동유형이 무단결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21	-.023	-	-
부 학력	.014	.017	.026	.025
경제수준	.008	.008	.014	-.005
편부모	.076***	.074***	.032	.118***
부모유대	-.013	-.014	-.031	-.007
학교성적(%)	.057**	.057**	.067**	.066*
전년도 결석빈도	.301***	.293***	.444***	.105***
노동참여자	.062**			
전단지		.012	.004	.027
음식점 서빙·배달		.085***	-.019	.205***
유해업소 서빙		.007	.009	.001
신문·우유 배달		-.004	-.001	-.007
판매		-.002	.013	-.010
제조·건설		.008	-.004	.026
기타 서비스		.097***	.146***	.015
R-square	.12	.12	.22	.08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무단결석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 음식점 서빙·배달에 종사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무단결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의 참여는 무단결석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노동유형에서 이러한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기타 서비스와 음식점 서빙·배달에서 무단결석에 대한 정적 효과가 검증된

것은 이 업종에서의 일이 대체로 노동시간이 길고, 늦게 끝나 다음 날의 수
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기타 서비스만이 무단결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음식점 서빙·배달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흡연

<표 IV-25> 노동유형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29	-.030	-	-
부 학력	-.004	.000	.006	-.003
경제수준	.020	.021	.008	.040
편부모	.046**	.041*	.042	.044
부모유대	-.012	-.012	-.027	.008
학교성적 (%)	.035	.033	.027	.051*
전년도 흡연빈도	.501***	.484***	.493***	.480***
노동참여자	.073***			
전단지		.014	-.005	.043
음식점 서빙·배달		.060**	.037	.099***
유해업소 서빙		.091***	.075**	.118***
신문·우유 배달		-.002	-.002	-.002
판매		-.007	-.004	.001
제조·건설		.083***	.056*	.120***
기타 서비스		.040*	.016	.077**
R-square	.28	.29	.28	.32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를 살펴보면, 유탄업소 서빙, 제조·건설, 음식점 서빙·배달, 기타 서비스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단지, 신문·우유배달, 판매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과 흡연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흡연행동에 있어서도 아르바이트 참여의 영향은 노동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유탄업소 서빙과 제조·건설이 흡연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유탄업소,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인들의 흡연과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유탄업소는 대체로 좁고 어둡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자신이 노출되지 않고 흡연을 하기가 용이하여 높은 흡연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유탄업소 서빙, 제조·건설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더 흡연을 많이 하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제조·건설, 유탄업소 서빙, 음식점 서빙·배달, 기타 서비스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더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아르바이트가 흡연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광범위한 노동유형에 걸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음주

<표 IV-26> 노동유형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17	-.019	-	-
부 학력	-.012	-.011	-.028	.007
경제수준	.015	.015	.010	.024
편부모	.014	.012	.011	.012
부모유대	-.024	-.024	-.061*	.028
학교성적(%)	.025	.024	-.012	.079**
전년도 음주빈도	.230***	.230***	.179***	.287***
노동참여자	.058**			
전단지		.032	-.002	.082**
음식점 서빙·배달		.058**	.045	.077**
유해업소 서빙		.020	.018	.022
신문·우유 배달		-.009	-.014	-.010
판매		.010	-.005	.018
제조·건설		.008	.004	.010
기타 서비스		.027	.017	.038
R-square	.60	.60	.03	.11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서는 음식점 서빙·배달에 종사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노동유형에서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과 음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식사와 더불어 성인들의 음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므로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음주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유형이 없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단지와 음식점 서빙·배달 유형에 종사하는 여학생들의 노동경험이 남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가출

<표 IV-27> 노동유형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23	-.024	-	-
부 학력	-.012	-.010	-.008	-.005
경제수준	.025	.025	.045*	-.003
편부모	.034*	.033*	.034	.022
부모유대	.003	.002	.005	.006
학교성적(%)	.009	.008	.006	.032
전년도 가출빈도	.544***	.538***	.609***	.445***
노동참여자	.067***			
전단지		.032*	.049*	.005
음식점 서빙·배달		.053**	.039	.108***
유해업소 서빙		.035*	.024	.055*
신문·우유 배달		-.002	-.001	-.002
판매		.002	-.001	.005
제조·건설		.016	-.019	.060*
기타 서비스		.055***	.068**	.015
R-square	.31	.31	.39	.24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을 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가출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 전단지에 종사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우유 배달, 판매, 제조·건설에 종사한 청소년들은 아

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과 가출횟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출에 대한 노동유형의 효과도 역시 노동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기타 서비스, 전단지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더 가출을 많이 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음식점 서빙·배달, 제조·건설, 유해업소 서빙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더 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유형의 변수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 성경험

<표 IV-28> 노동유형이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08	-.007	-	-
부 학력	-.007	-.007	-.021	.007
경제수준	.003	.003	.003	.002
편부모	.045*	.047*	-.014	.113***
부모유대	-.002	-.002	-.033	.032
학교성적(%)	.002	.002	.024	-.018
전년도 성경험 빈도	.267***	.268***	.258***	.290***
노동참여자	.005			
전단지		.019	-.016	.061*
음식점 서빙·배달		-.024	-.034	-.020
유해업소 서빙		.003	.005	-.007
신문·우유 배달		-.002	-.003	.000
판매		.005	-.003	.003
제조·건설		-.016	-.028	-.006
기타 서비스		-.003	-.007	-.001
R-square	.07	.07	.06	.10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성경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어떤 노동유형도 성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경험에 대해서는 노동참여 경험이나 노동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유형이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가 성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폭력

<표 IV-29> 노동유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45*	-.047*	-	-
부 학력	-.005	-.005	-.017	.039
경제수준	-.005	-.006	-.019	.051
편부모	.006	.004	-.007	.076
부모유대	-.012	-.011	.004	-.090
학교성적(%)	-.020	-.022	-.042	.040
전년도 폭력 빈도	.021	.020	.011	.121***
노동참여자	.024			
전단지		.005	.003	.027
음식점 서빙·배달		.038	.012	.187***
유해업소 서빙		.018	.026	.012
신문·우유 배달		-.003	-.005	-.003
판매		.019	.000	.104***
제조·건설		-.002	-.003	-.006
기타 서비스		.001	-.001	.010
R-square	.00	.00	-.01	.08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폭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서 어떤 노동유형도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유형이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음식점 서빙·배달, 판매가 폭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점 서빙이나 배달, 판매에 종사하는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들보다 폭력행동의 횟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7) 패싸움

<표 IV-30> 노동유형이 패싸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05	-.007	-	-
부 학력	.018	.019	.018	.015
경제수준	.014	.013	.003	.022
편부모	-.002	-.005	-.009	.002
부모유대	-.013	-.012	.014	-.030
학교성적(%)	.031	.029	-.018	.065*
전년도 패싸움 빈도	.120***	.117***	.126***	.111***
노동참여자	.025			
전단지		-.004	.013	-.019
음식점 서빙·배달		.051**	.037	.053
유해업소 서빙		.039*	.062*	.021
신문·우유 배달		-.006	-.010	-.004
판매		.008	-.001	.010
제조·건설		-.003	-.001	-.005
기타 서비스		.005	-.004	.014
R-square	.02	.02	.01	.02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패싸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이 패싸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해업소 서빙이 패싸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노동유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금품갈취

<표 IV-31> 노동유형이 금품갈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04	.003	-	-
부 학력	-.007	-.007	-.038	.014
경제수준	-.016	-.016	.013	-.053
편부모	.000	.000	.026	-.022
부모유대	-.038*	-.038*	-.038	-.033
학교성적(%)	-.004	-.004	-.034	.006
전년도 금품갈취 빈도	.213***	.213***	.036	.322***
노동참여자	.034			
전단지		.032	.011	.042
음식점 서빙·배달		.018	.002	.025
유해업소 서빙		-.001	.003	.001
신문·우유 배달		-.002	-.005	-.002
판매		.016	-.001	.019
제조·건설		.002	.007	.002
기타 서비스		-.002	-.001	-.002
R-square	.05	.05	-.004	.10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금품갈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역시 금품갈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금품갈취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유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9) 절도

<표 IV-32> 노동유형이 절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11	-.012	-	-
부 학력	.025	.025	.007	.051
경제수준	-.001	-.001	.003	-.006
편부모	-.022	-.024	-.006	-.046
부모유대	-.007	-.006	.024	-.046
학교성적(%)	.029	.029	.006	.058*
전년도 절도빈도	.108***	.107***	.159***	.071**
노동참여자	.112***			
전단지		.112***	.141***	.075**
음식점 서빙·배달		.052**	-.006	.116***
유해업소 서빙		-.002	-.001	.004
신문·우유 배달		-.003	-.002	-.006
판매		-.003	.000	-.008
제조·건설		.043*	.078**	-.004
기타 서비스		-.004	-.002	-.007
R-square	.03	.03	.05	.03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을 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절도를 더 많

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를 살펴보면,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 제조·건설에 종사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절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와 제조·건설이 절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음식점 서빙·배달과 전단지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징계경험

<표 IV-33> 노동유형이 징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51**	-.051**	-	-
부 학력	.016	.016	.016	.015
경제수준	-.002	-.002	.005	-.012
편부모	.001	.002	.012	-.017
부모유대	-.050**	-.051**	-.067**	-.035
학교성적(%)	.075***	.075***	.088**	.052*
전년도 징계경험	.442***	.441***	.359***	.546***
노동참여자	.089***			
전단지		.069***	.105***	.031
음식점 서빙·배달		.037*	.022	.052*
유해업소 서빙		.032	.034	.028
신문·우유 배달		.023	.028	.018
판매		.018	.039	.009
제조·건설		.004	.005	.008
기타 서비스		.029	.034	.021
R-square	.24	.24	.17	.33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징계를 더 많이 경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에 종사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징계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만이 징계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음식점 서빙·배달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학업성적

<표 IV-34> 노동유형이 반성적(반등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12	-.013	-	-
부 학력	-.054***	-.054***	-.044*	-.062***
경제수준	-.020	-.021	-.031	-.009
편부모	-.004	-.005	.015	-.023
부모유대	-.045***	-.044***	-.042**	-.046**
전년도 반성적(반등수)	.794***	.793***	.784***	.807***
노동참여자	.048***			
전단지		.046***	.028	.063***
음식점 서빙·배달		.025*	.031*	.023
유해업소 서빙		.015	.025	.003
신문·우유 배달		-.026*	-.015	-.043**
판매		.006	-.004	.012
제조건설		.009	.021	-.004
기타 서비스		.001	.011	-.007
R-square	.701	.702	.685	.723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반성적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

보면,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에 종사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업성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우유 배달을 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업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의 참여가 학업성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노동 유형에서 이러한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음식점 서빙·배달이 반성적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 돌리기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교사애착

<표 IV-35> 노동유형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50**	-.050**	-	-
부 학력	.021	.021	-.033	-.055
경제수준	-.034	-.033	.058*	.040
편부모	.006	.008	.022	.038
부모유대	.162***	.160***	-.135***	-.176***
전년도 교사 애착	.269***	.269***	.008	-.098***
노동참여자	.009			
전단지		.010	.011	.060*
음식점 서빙·배달		.009	.054*	.061*
유해업소 서빙		-.005	-.006	.040
신문·우유 배달		.036*	-.011	-.004
판매		-.002	.033	.015
제조·건설		-.029	.045	.026
기타 서비스		.003	.046	.049
R-square	.112	.114	.030	.068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교사애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신문·우유 배달이 교사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음식점 서빙·배달이 교사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와 음식점 서빙·배달이 교사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학교친구와의 어울림 정도

<표 IV-36> 노동유형이 학교 친구와의 어울림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55**	.056**	-	-
부 학력	.034	.034	.024	.051
경제수준	-.022	-.002	-.005	.002
편부모	-.047**	-.048**	-.020	-.082**
부모유대	.151***	.150***	.147***	.152***
전년도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정도	.288***	.289***	.275***	.307***
노동참여자	-.020			
전단지		-.011	-.001	-.022
음식점 서빙·배달		-.027	-.030	-.023
유해업소 서빙		-.034*	-.049*	-.014
신문·우유 배달		.008	.002	.019
판매		-.041*	-.080**	-.024
제조·건설		.009	.035	-.027
기타 서비스		.007	.004	.009
R-square	.128	.131	.117	.154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와 학교친구와의 어울림의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유해업소 서빙, 판매에서 종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들과의 어울림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해업소 서빙, 판매에서 종사한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들과의 어울림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학교 교칙·규정 적응정도

<표 IV-37> 노동유형이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남학생	여학생
성	.002	.001	-	-
부 학력	-.031	-.030	-.014	-.050
경제수준	.056**	.056**	.056*	.060*
편부모	.021	.019	.021	.020
부모유대	-.133***	-.133***	-.115***	-.149***
전년도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	.300***	.298***	.229***	.362***
노동참여자	.051**			
전단지		.029	.002	.053*
음식점 서빙·배달		.039*	.044	.032
유해업소 서빙		.008	.005	.001
신문·우유 배달		-.011	-.013	-.007
판매		.017	.037	.006
제조·건설		.027	.043	.008
기타 서비스		.035*	.039	.029
R-square	.125	.127	.081	.183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모델 1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의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학교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참여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모델 2를 살펴보면, 음식점 서빙·배달과 기타 서비스에 종사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단지 돌리기에 종사한 학생들이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동강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부적응행동에 대한 아르바이트 노동강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성, 아버지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편부모여부, 부모와의 유대감, 학교성적, 1차년도 학교부적응행동의 횟수가 회귀모델에 투입되었으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학교부적응행동은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 성격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징계경험이다.

(1) 무단결석

<표 IV-38> 노동강도가 무단결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16	-	-
부 학력	.023	-.033	.103
경제수준	-.057	-.022	-.088
편부모	.030	-.013	.084
부모유대	.050	.024	.067
학교성적(%)	.121*	.088	.169*
전년도 결석빈도	.381***	.461***	.223**
주당노동시간	.183***	.122	.258**
R-square	.21	.23	.17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무단결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무단결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단결석에 대한 주당노동시간의 정적 효과는 여학생에게서만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여학생의 무단결석횟수는 증가하지만, 남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흡연

<표 IV-39> 노동강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38	-	-
부 학력	.021	.017	.004
경제수준	.035	.031	.033
편부모	.009	-.033	.017
부모유대	.027	-.028	.105
학교성적(%)	.119*	.055	.183*
전년도 흡연빈도	.644***	.833***	.483***
주당노동시간	.115*	-.039	.240**
R-square	.48	.69	.35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흡연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주당노동시간의 정적 영향은 여학생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여학생의 흡연횟수는 증가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음주

<표 IV-40> 노동강도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53	-	-
부 학력	.032	-.054	.029
경제수준	.004	.007	.015
편부모	.043	.123	-.003
부모유대	.066	-.118	.157*
학교성적(%)	.035	-.138	.097
전년도 음주빈도	.366***	.388***	.352***
주당노동시간	.158**	.021	.233**
R-square	.16	.15	.18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음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주당노동시간의 정적 영향은 역시 여학생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여학생의 음주횟수는 증가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출

<표IV-41> 노동강도가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52	-	-
부 학력	.055	.093	.048
경제수준	-.008	.060	-.033
편부모	.086*	.174**	.031
부모유대	.067	.114*	.042
학교성적(%)	.058	.060	.068
전년도 가출빈도	.720***	.735***	.802***
주당노동시간	.069	.057	.088
R-square	.54	.55	.68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가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도 역시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가출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성경험

<표 IV-42> 노동강도가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51	-	-
부 학력	.018	.029	.025
경제수준	-.053	-.058	-.081
편부모	.128*	-.010	.170*
부모유대	.031	.042	.018
학교성적(%)	-.066	-.023	-.080
전년도 성경험빈도	.439***	.772***	.369***
주당노동시간	-.056	-.014	-.097
R-square	.20	.57	.15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성경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성경험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6) 폭력

<표 IV-43> 노동강도가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11	-	-
부 학력	.044	.093	.054
경제수준	.126*	.065	.080
편부모	.135*	-.013	.106
부모유대	-.120*	.012	-.174*
학교성적(%)	.072	.077	-.015
전년도 폭력빈도	.179**	.218*	.446***
주당노동시간	-.038	-.037	-.133
R-square	.06	.01	.24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폭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폭력행동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7) 패싸움

<표 IV-44> 노동강도가 패싸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12	-	-
부 학력	.091	.139	.025
경제수준	.050	.034	.058
편부모	.060	-.038	.116
부모유대	-.009	.007	.012
학교성적(%)	.055	.039	.106
전년도 패싸움빈도	.292***	.268**	.299***
주당노동시간	.086	-.005	.160*
R-square	.10	.06	.16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패싸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패싸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단지 여학생에게서만 주당노동시간의 정적 영향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당노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학생의 패싸움횟수가 증가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8) 금품갈취

<표 IV-45> 노동강도가 금품갈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35	-	-
부 학력	.023	.132	.041
경제수준	-.020	-.033	-.027
편부모	-.021	-.015	-.022
부모유대	-.043	-.015	-.073*
학교성적(%)	-.025	.136	-.056
전년도 금품갈취빈도	.899***	.123	.909***
주당노동시간	-.045	-.043	-.050
R-square	.80	-.007	.83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금품갈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금품갈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금품갈취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9) 절도

<표 IV-46> 노동강도가 절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47	-	-
부 학력	.087	.011	.120
경제수준	-.038	-.054	-.010
편부모	-.041	-.027	-.065
부모유대	-.026	.102	-.166*
학교성적(%)	.028	-.087	.049
전년도 절도빈도	.281***	.586***	.165*
주당노동시간	-.012	-.052	.004
R-square	.07	.31	.03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절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절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절도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10) 징계경험

<표 IV-47> 노동강도가 징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101*	-	-
부 학력	.030	-.030	.071
경제수준	-.004	.042	-.039
편부모	.022	.047	.008
부모유대	.018	.018	.021
학교성적(%)	.018	-.001	.028
전년도 징계경험	.547***	.593***	.517***
주당노동시간	-.008	-.062	.047
R-square	.30	.32	.26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징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징계경험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징계경험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11) 학업성적

<표 IV-48> 노동강도가 반성적(반 등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03	-	-
부 학력	-.060	.024	-.108
경제수준	.009	-.030	.051
편부모	.009	.067	-.011
부모유대	.006	.021	-.034
전년도 반성적(반등수)	.778***	.847***	.729***
주당노동시간	-.039	.046	-.104
R-square	.628	.741	.547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반성적(반등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반성적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반성적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12) 교사애착

<표 IV-49> 노동강도가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08	-	-
부 학력	.114	.096	.131
경제수준	-.042	-.009	-.084
편부모	.081	.054	.103
부모유대	.164**	.206**	.122
전년도 교사애착	.242***	.287***	.189*
주당노동시간	.010	.129	-.094
R-square	.107	.169	.096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노동시간이 교사애착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교사애착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13) 학교친구와의 어울림 정도

<표 IV-50> 노동강도가 학교 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58	-	-
부 학력	-.036	-.157	.057
경제수준	.107	.090	.116
편부모	-.074	-.157	-.024
부모유대	.132*	-.019	.222**
전년도 학교 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	.307***	.270**	.344***
주당노동시간	.000	.060	-.056
R-square	.141	.121	.240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학교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학교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학교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14) 학교 교칙·규정 적응정도

<표 IV-51> 노동강도가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성	.051	-	-
부 학력	.070	.069	.065
경제수준	.001	-.033	.047
편부모	.041	.029	.055
부모유대	-.063	.004	-.137
전년도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	.228***	.277**	.319***
주당노동시간	.094	.170	.016
R-square	.128	.116	.142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강도가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당 노동시간이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주당노동시간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에 대하여 노동강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관련 변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14.8%였던 것이 비해 2차년도에는 11.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2차년도 조사시기가 조사 대상자들이 중학교 3학년으로서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비슷한 비율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4.5%였으며,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은 6.9%로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게 되는 학생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1차년도의 경우와 같이 2차년도에도 지난 1년간 1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경우에도 1차년도와 유사하게 전단지 돌리기가 전체의 66.2%를 차지하여, 전단지 돌리기가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음식점 혹은 카페 등에서의 서빙이나 카운터 보기, 배달 등의 일을 한 학생의 비율은 1차년도의 9.6%에서 2차년도에는 20.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들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을 의

미한다. 특히 전단지 돌리기와 달리 서빙이나 카운터 보기 등은 성인의 직접적인 감독과 지시 하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작업환경을 가진 직종으로의 진출은 청소년들을 조금 더 성인의 작업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강도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이 1주일 이하가 1차년도와 같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1주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의 비율도 1차년도의 24%에서 2차년도에는 29.2%로 증가하였다. 또한 주당 근무일수의 경우도 4일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1주일에 7일을 일했다는 학생의 비율도 15%에 달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강도가 점차 심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일 근무 시간의 경우도 4시간 이상 일했다는 학생의 비율이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과 작업강도와의 관계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전단지 돌리기보다는 그 이외의 직종에서 일을 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외의 영역에 할애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희생되는 경향을 동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가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기이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아르바이트에의 지나친 몰입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학생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을 못받거나 혹은 약속보다 적게 받은 학생의 비율과 야간작업이나 초과 작업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은 2차년도에 오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비록 적은 수이지만 폭언 등의 인격 모독, 구타나 폭행, 심지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년 모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2년 모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낮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용돈 부족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부모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학업 성적을 갖고 있었다. 특히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반등수, 반등수 비율, 전교등수 및 전교등수 비율에서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교 성적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비행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사이에도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 성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년도에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었던 학생들에서 보다는 2년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음주나 흡연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비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의 학교 성적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저해하며 비행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현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교 성적 그리고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차년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아르바

이트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친구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숙제를 못해간 적이 있거나 성적이 떨어졌거나 친구와 보낼 시간이 감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의 정도는 청소년들이 하는 작업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주당 근무 일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일일 근무 시간이 많을수록 아르바이트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직종에서 일을 한 학생일수록 수업시간에 잔 적이 있거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 문항들이 학교생활의 충실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아르바이트의 작업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작업강도가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이외의 영역에서의 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그 실태와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비록 다변량 분석보다는 아르바이트 경험 혹은 경험 유무의 변화와 다른 변수들 간의 이변량 관계(bivariate relationship)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관계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 연구에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유형과 노동강도가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 성격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징계경험, 학업성적, 교사애착, 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 학교교칙이나 규정에의 적응정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하

여 검증하였다.

아르바이트 노동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무단결석에 대해서는 음식점 서빙·배달, 기타 서비스가, 흡연에 대해서는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 제조건설, 기타 서비스가, 음주에 대해서는 음식점 서빙·배달이, 가출에 대해서는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 기타 서비스, 전단지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성경험, 폭력, 금품갈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유형이 없었다. 께싸움에 대해서는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이, 절도에 대해서는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 제조·건설이, 징계경험에 대해서는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반성적(반등수)에 대해서는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이 부적 영향을, 신문·우유배달이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애착에 대해서는 신문·우유배달이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친구와의 어울림 정도에는 유해업소 서빙, 판매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칙 및 규정 적응도에는 음식점 서빙·배달과 기타 서비스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참여는 대체로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의 증가와 연관이 많은 반면, 성비행과 폭력비행의 증가와는 거의 연관이 없고, 절도와 같은 재산비행에 대해서는 연관의 정도가 그 중간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르바이트 노동유형 중에서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 기타 서비스 노동유형에서 정적 효과가 검증된 반면, 신문·우유 배달과 판매에서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의 참여여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참여경험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참여는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 등 업종에 따라 반성적, 학교친구와의 어울림 정도, 학교 교칙 및 규정 적응도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현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일의 유형

이 대체로 건전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유형 중에서 음식점 서빙·배달은 성경험, 폭력, 금품갈취, 교사애착, 학교친구와의 어울림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학교부적응행동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식점 서빙·배달 업종에서의 노동참여가 왜 이렇게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는 음식점에서의 서빙과 배달 업무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는데, 업무와 노동환경을 고려해볼 때,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유형 중에서 유해업소 서빙이 학교친구와의 어울림을 제외하고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음식점 서빙·배달이나 기타 서비스와 비교해서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조사응답자들이 참여했던 유해업소들이 비록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대부분 비디오방,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과 같이 유해의 심각성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해업소 서빙이 여학생에게는 가출을, 남학생에게는 패싸움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해업소 고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노동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보다 다양한 노동유형에서 검증되었다. 특히 음주, 성경험, 폭력, 반성적, 학교교칙에의 적응도의 경우에는 남학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유형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여학생에서는 일부 노동유형의 정적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교부적응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바이트 노동강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노동강도의 정적 효과가 발견된 경우는, 무단결석, 흡연, 음주이며, 가출, 성경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징계경험, 반성적, 교사애착, 친구와의 어울림 정도,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의 적응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어떤 노동유형에서도 노동강도의 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여학생은 무단결석, 흡연, 음주, 패싸움에서 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강도의 효과가 성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여학생들의 학교부적응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남학생들의 학교부적응행동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이 연구의 결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현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즉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돌리기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약 80%에 육박한 반면, 2차년도에는 그 비율이 약 67% 정도로 낮아졌다. 동시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약 10%에서 2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작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단지 돌리기는 성인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의 일 등은 제한된 장소에서 성인의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 혹은 태도 뿐 아니라 실제 작업 수행 결과에 대해 성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평가를 받게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맞지 않거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 성과를 내었을 때에는 성인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할 수도 있게 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확대는 동시에 작업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거리에서 혹은 주택가를 돌며 이루어지는 전단지 돌리기와는 달리 일정

장소에서 주어진 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작업 내용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직종의 확대와 관련된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현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확대와 노동 강도와의 관계이다. 노동 강도가 학업 성취 정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친구와의 관계와도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즉 전단지 돌리기보다는 그 외의 직종에서 일을 한 학생들의 노동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노동강도는 곧 학업이나 학교생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투자해야 할 시간의 부족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청소년들이 전단지 돌리기 이외의 아르바이트로부터 긍정적인 직업 경험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하는 직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노동 강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청소년의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 즉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계약조건 위반, 열악한 작업 환경, 인권 침해 등의 경험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일부 청소년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이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 조건에 대한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 등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이런 방법들이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비행 가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로부터의 소외가 학업의 중포 포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노동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일부 노동유형에서는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교부적응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영향을 미치는 학교부적응행동은 대부분 지위비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은 청소년의 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학교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육구는 남학생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학생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나마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업종도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유형의 측면과 노동강도의 측면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동의 부정적 결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여학생에 대하여, 특히 나이가 어린 집단에 대하여 어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성세대의 인식이 오히려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여 학교부적응 관련행동들을 증가시켰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르바이트에 처음 참여하려는 청소년에 대한 안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법적인 연령의 자격을 갖춘 청소년 중에서 희망자에 대하여 일에 대한 가치, 진로탐색의 중요성, 건전 아르바이트의 소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같은 내용을 조기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7집 제6호, pp. 115-144.
- 김해동·이창한(2002). 청소년 시간제 근로의 정규직으로 가교역할 탐구. 직업교육 연구.
- 노동부(2004). 노동부 고시 제2004-23호. <http://www.molab.go.kr> (2005. 10. 1)
- 도중수(2001).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와 대책. 사회복지정책, 제13집. pp. 104-123.
- 문성호(2003). 학생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83-103.
- 박창남(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207-238.
- 박창남(2004). 청소년노동에서 인권의 의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1호. pp. 25-36.
-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 옥경희(1993).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경험이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 14권 2호.
- 유성경, 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255-281.
-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형하·이용교(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2호.

- 장원섭(1999). 시간제 취업이 고등학생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능력 개발연구 2.
- 장원섭(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 취업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153-180
-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2000). 학교부적응 실태조사 및 적응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 Barro, S.(1984). *The Incidence of Dropping Out: A Descriptive Analysis*. Washington, DC: Economic Research.
- D'Amico, R.(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Vol 57, pp. 152-164.
- Finch, M. D., Shanahan, M. J., Mortimer, J. T. & Ryu, S.(1991) Work experience and control orientation in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6, pp. 597-611.
- Greenberger, E. & Steinberg, L. D.(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employment*. NY: Basic Books
- Mcneal, R. B.(1995).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High School Dropout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8, pp. 62-81.
- Mcneal, R. B.(1997). Are students being pulled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dropping out, *Sociology of Education*, Vol 70, pp. 206-220.
- Mortimer, J.T., Shanahan, M.J. & Ryu, S.(1994). The effects of adolescent employment on school-related orientation and behavior. In R. K. Silvereisen &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 NY: Springer-Verlag
- Montimer, J. T. & Finch, M. D.(1986).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Borman, K & Reisman, J. (eds), *Becoming a worker* pp. 66-89. Norwood, NJ:Albex.
- Pimental, E. E.(1996), Effects of adolescent achievement and family goals on the early adult transition. In Montimer, J. T. & Finch, M. D.

-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pp 191–220. Thousand Oaks: Sage.
- Rumberger, R. W.(1987). High school dropouts: A review of issues and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7, pp. 101–121.
- Rumberger, R. W.(1995). Dropping out of middle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s and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2. No 3, pp. 583–625.
- Schulenberg, J. & Bachman, J. G.(1993). *Long hours on the job? Not so bad for some adolescence in some types of jobs: The quality of work and substance use, affect, and 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Shanahan, M. J., Mortimer, J. T., Finch, M. D., & Ryu, S. (1991)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depressive affe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4, pp. 299–317.
- Steinberg, L. D. & Dornbusch, S. M.(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pp. 304–313.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흥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향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해연 · 조아미 · 박현선
-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혜영
-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05-R12-3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이수진
-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윤숙 · 이인호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흥주·
 김현철·성윤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윤숙·백혜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흥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흥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 - 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와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 연구수행 자료집

-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관련 효과**

인 쇄 2005년 12월 3일

발 행 2005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식회사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565-6(93330)

연구보고 05-R12-1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유성렬(천안대학교 · 교수)

박창남(한중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현희(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박현수(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조주연(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2학년 패널 1-2차년도 자료를 가지고 중학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1차년도의 경우와 같이 2차년도에도 지난 1년간 1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경우에도 1차년도와 유사하게 전단지 돌리기가 전체의 66.2%를 차지하여, 전단지 돌리기가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음식점 혹은 카페 등에서의 서빙이나 카운터 보기, 배달 등의 일을 한 학생의 비율은 1차년도의 9.6%에서 2차년도에는 20.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들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을 의미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강도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이 1주일 이하가 1차년도와 같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1주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의 비율도 1차년도의 24%에서 2차년도에는 29.2%로 증가하였다. 또한 주당 근무일수의 경우도 4일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1주일에 7일 일했다는 학생의 비율도 15%에 달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 강도가 점차 심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부당 경험의 실태의 살펴보면, 임금을 못받거나 혹은 약속보다 적게 받은 학생의 비율과 야간작업이나 초과 작업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은 2차년도에 오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그 변화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년 모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2년 모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낮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학업 성적을 갖고 있었다. 특히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반등수, 반등수 비율, 전교등수 및 전교등수 비율에서 2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비행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사이에도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 성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년도에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참여는 대체로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의 증가와 연관이 많은 반면, 성비행과 폭력비행의 증가와는 거의 연관이 없고, 절도와 같은 재산비행에 대해서는 연관의 정도가 그 중간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참여는 전단지, 음식점 서빙·배달, 유흥업소 서빙 등 업종에 따라 반성적, 학교친구와의 어울림 정도, 학교 교칙 및 규정 적응도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노동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노동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보다 다양한 노동유형에서 검증되었다. 특히 음주, 성경험, 폭력, 반성적, 학교교칙에의 적응도의 경우에는 남학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유형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여학생에서는 일부 노동유형의 정적 효과가 검증되었다.

아르바이트 노동강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노동강도의 정적 효과가 발견된 경우는, 무단결석, 흡연, 음주이며, 가출, 성경험, 폭

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징계경험, 반성적, 교사에착, 친구와의 어울림 정도, 학교 교칙이나 규정예의 적응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어떤 노동유형에서도 노동강도의 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여학생은 무단결석, 흡연, 음주, 패싸움에서 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강도의 효과가 성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의 결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현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확대는 동시에 작업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직종의 확대와 관련된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현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확대와 노동 강도와의 관계이다. 노동 강도가 학업 성취 정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친구와의 관계와도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노동강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 즉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계약조건 위반, 열악한 작업 환경, 인권 침해 등의 경험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 조건에 대한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이나 문제가 발생 했을 때의 대처 방

법 등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이런 방법들이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노동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일부 노동유형에서는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교부적응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영향을 미치는 학교부적응행동은 대부분 지위비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은 청소년의 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학교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유형의 측면과 노동강도의 측면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노동의 부정적 결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여학생에 대하여, 특히 나이가 어린 집단에 대하여 어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성세대의 인식이 오히려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여 학교부적응 관련행동들을 증가시켰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르바이트에 처음 참여하려는 청소년에 대한 안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법적인 연령의 자격을 갖춘 청소년 중에서 희망자에 대하여 일에 대한 가치, 진로탐색의 중요성, 건전 아르바이트의 소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같은 내용을 조기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논의	5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7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학교부적응	9
III. 분석자료	17
IV. 분석결과	21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23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23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	26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요인	35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51
1) 노동유형별 주요 변수들의 분포 및 평균	52
2) 아르바이트 노동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53
3) 노동강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69
V. 결론 및 정책 제언	83
1. 연구 요약	85
2. 정책적 제언	91
참고문헌	95

표 목차

<표 III-1>	중2 패널 1차년도 12개 시도별 표집학교수 (제주도 제외)	17
<표 III-2>	중2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조사성공률	18
<표 III-3>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19
<표 IV-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1·2차년도)	23
<표 IV-2>	1차년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2차년도 표본탈락과의 관계	24
<표 IV-3>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25
<표 IV-4>	지난 1년간의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1·2차년도)	26
<표 IV-5>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28
<표 IV-6>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	29
<표 IV-7>	아르바이트의 주당 근무 일수	30
<표 IV-8>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 시간	31
<표 IV-9>	시간당 보수	32
<표 IV-10>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직무 기간 및 강도의 차이	33
<표 IV-11>	부당한 근로 경험	34
<표 IV-12>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2차년도)	35
<표 IV-13>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37
<표 IV-14>	학업 성적(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2차년도)	38
<표 IV-15>	학업 성적(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39

<표 IV-16>	비행(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41
<표 IV-17>	비행(1차년도)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	43
<표 IV-18>	아르바이트 경력과 2차년도 아르바이트 작업강도와의 관계	46
<표 IV-19>	아르바이트 경력과 2차년도 아르바이트 직종과의 관계	47
<표 IV-20>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게 된 경험과 아르바이트 작업강도와의 관계	48
<표 IV-21>	아르바이트 직종과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과의 관계	49
<표 IV-22>	아르바이트 경력과 아르바이트로 인해 겪은 경험과의 관계	50
<표 IV-23>	노동유형별 주요 변수들의 분포 및 평균	52
<표 IV-24>	노동유형이 무단결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54
<표 IV-25>	노동유형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55
<표 IV-26>	노동유형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57
<표 IV-27>	노동유형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58
<표 IV-28>	노동유형이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59
<표 IV-29>	노동유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0
<표 IV-30>	노동유형이 패싸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1

<표 IV-31> 노동유형이 금품갈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2
<표 IV-32> 노동유형이 절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3
<표 IV-33> 노동유형이 징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4
<표 IV-34> 노동유형이 반성적(반등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5
<표 IV-35> 노동유형이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6
<표 IV-36> 노동유형이 학교 친구와의 어울림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7
<표 IV-37> 노동유형이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8
<표 IV-38> 노동강도가 무단결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69
<표 IV-39> 노동강도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0
<표 IV-40> 노동강도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1
<표 IV-41> 노동강도가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2
<표 IV-42> 노동강도가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3
<표 IV-43> 노동강도가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4
<표 IV-44> 노동강도가 패싸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5

<표 IV-45> 노동강도가 금품갈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6
<표 IV-46> 노동강도가 절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7
<표 IV-47> 노동강도가 징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8
<표 IV-48> 노동강도가 반성적(반 등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79
<표 IV-49> 노동강도가 교사에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80
<표 IV-50> 노동강도가 학교 친구들과의 어울림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81
<표 IV-51> 노동강도가 학교 교칙이나 규정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82

그림 목차

[그림 IV-1] 아르바이트 직종 현황(1·2차년도)	27
-------------------------------------	----